

KIA타이거즈, 팬들과 우승 기쁨 만끽

'V12 넘어 왕조 향해'

35년 만에 광주 금남로서 우승 카퍼레이드
팬 사인회 · 머플러 응원 재현하며 팬들과 호흡
선수들 슛폼 패러디 · 노래 등으로 팬에 '보답'

2024 시즌 프로야구 정규리그·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차지한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12번째 우승의 기쁨을 광주시민, 팬들과 함께 만끽했다.

KIA타이거즈는 지난달 30일 오후 이범호 감독을 비롯한 KIA의 12번째 우승 주역들이 탄 대형버스 행렬이 광주 금남로 5가부터 5·18민주광장까지 1.2km 구간을 행진하는 카퍼레이드 행사를 벌였다.

카퍼레이드 1호 차량에는 이범호 감독과 주장 나성범, 올 시즌 새 역사를 쓴 MVP 김도영, 한국시리즈 MVP 김성빈, '투수조 베테랑' 양현종 등 25명의 선수단이 탑승했다.

2호 차량에는 광주발달장애인청소년 야구단 ET(EAST TIGERS) 선수 7명과 야구 유망주·광주시야구협회 등 17명이 올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타이거즈 구단으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14~25세의 경증·중증 발달장애인 30명으로 구성된 ET야구단은 지난해 해체 위기에 처했다가 고향사랑 지

정 기부 등을 통해 부활, 희망과 꿈을 키워가고 있다.

카퍼레이드 행렬은 경찰차의 안내와 풍물패·군악대의 행진곡 연주에 맞춰 금남로를 따라 이동했다.

수천여 명의 팬들은 1989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5번째 우승을 달성한 이후 35년 만에 펼쳐진 카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도로 곳곳에 줄지어 선 팬들은 '김도영 너 댁시 살아야 타이거즈 왕조 건설' '12번째 우승 축하해요'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환호했다.

지붕이 없는 2층 버스에 올라탄 선수들은 도로 양쪽 곳곳에 선 팬들에게 손 흔들거나 환하게 미소지으며 성원에 화답했다.

올 시즌 MVP이자 역대 최연소 야수 출신 MVP의 영예를 차지한 김도영 역시 잊지 못할 퍼레이드 순간을 휴대전화로 담기도 했다.

행진 종료지점인 5·18민주광장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시민을 대표해 감사패와 우승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2024 KIA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우승 축하 카퍼레이드 행사,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IA타이거즈 선수단은 곧바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이동해 팬 5000여 명과 함께 'V12 타이거즈 팬 페스타'를 즐겼다.

올 시즌 통합우승을 일군 만큼, 팬들의 사랑과 성원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 구단이 마련한 대규모 팬 서비스 행사다.

선수단은 팬들이 가져온 유니폼이나 야구공에 직접 사인을 해주고 함께 셀카 촬영을 하며 올 해 받은 뜨거운 사랑에 보답했다.

행사는 팬 사인회, 정규시즌·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 공개, 선수단 입장·인사, 무등산보호기금 전달식,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축하 공연, 응원전, 선수단 '호랑이 가족 한마당' 등으로 이어졌다.

타이거즈 응원단을 중심으로 선수단과 팬이 모두 함께 '외쳐라 최강기아'를 모두 열창하면서 행사 분위기가 고조됐다.

'최강 기아'가 적힌 노란·빨간색 양면 선건을 펼쳐들며 한국시리즈 응원전 백미인 '홀짝 응원'을 재현할 때에는 올 시즌 박찬덕 감독이 되살아나며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선수들이 직접 꾸민 '호랑이 가족 한마당'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착안한 토크쇼와 흑백 호랑이(라이벌

게임 맞대결), 슛폼 콘텐츠 패러디 영상 상영 등으로 팬들에게 기쁨을 더했다.

특히 선수단은 팬 서비스 차원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댄스 공연 등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올 시즌 슈퍼스타 김도영은 평소 관심을 표현한 뉴진스의 하늬가 불러 화제가 된 일본 인기곡 '푸른산호초' 여장 차림으로 불러 팬들에게 큰 웃음을 주기도 했다.

구단 측은 이날 입장하는 팬 전원에게는 통합 우승 특별 포토 카드와 한국시리즈 응원 머플러를 사은품으로 전달했다. /뉴시스

전북체육회 전 기획조정본부장 명예훼손으로 항소심도 벌금형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과 사무처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으로 일린 당시 전북도체육회 기획조정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체육회 전 기획조정본부장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1일 전북도체육회 본관 앞 전주종합경기장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 회장과 사무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내에 대한 민원을 중용하고 언론재보를 했다"는 말을 해 회장과 사무처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로 피해자의 명예훼손 사실을 자백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그가 말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직권 남용을 단정적으로 말했기에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이 적지 않게 손상됐을 것"이라며 "원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항소심에 와서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의 이해란.

女프로농구 우승후보 삼성생명, 6연승 질주

1위 BNK에 80-55 대승... '에이스' 이해란 21점 맹활약
팀은 2라운드 전승으로 마무리... 현재 6승 4패로 3위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이 '1위' 부산 BNK를 잡고 6연승을 달렸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BNK와의 하나은행 2024~2025시즌 여자프로농구 2라운드 홈 경기에서 80-55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삼성생명은 6연승을 기록하면서 2라운드를 전승으로 마무리했다.

6승4패로 3위를 굳건히 했다.

삼성생명은 개막 전 BNK와 함께 선수 구성에 변화가 없어 조직력을 높여 평가받으면서 유력한 우승 후보라는 수식어를 얻은 바 있다. 이날 경기에서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자랑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1위 BNK는 연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8승2패를 기록하게 됐다.

삼성생명에선 핵심 자원이 이해란이 21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이바지했다.

여기에 키아나 스미스, 배혜운 등이

각각 15점, 13점으로 힘을 보탤다.

BNK에선 김소니아가 12점으로 고군분투했으나,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1쿼터까지는 치열했다. 삼성생명이 21점을 넣는 사이, BNK가 20점으로 추격했다.

하지만 2쿼터에 분위기가 확실히 기울었다.

이해란과 키아나 스미스를 앞세운 삼성생명이 20점을 기록하며 흐름을 잇는 사이, BNK는 단 10점에 그쳤다.

3쿼터에도 반전은 없었다. BNK는 더 적은 9점밖에 터트리지 못했다.

4쿼터에 다시 페이스를 되찾는 듯했으나 벌어진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뉴시스

K리그1 포항, 코리아컵 2연승

울산과 경기서 3-1 역전승
전북·K리그2 수원삼성과
최다 우승 공동 1위에 올라



프로축구 K리그1 포항스틸러스가 연장 접전 끝에 라이벌 K리그1 울산 HD에 역전승을 거두면서 코리아컵 최다 우승팀이 됐다.

포항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정재희, 김인성, 강현제의 연속골에 힘입어 3-1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포항은 컵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디펜딩 챔피언" 포항은 지난 시즌 결승에서 전북을 꺾고 통산 5회 우승을 달성하며 전북, K리그2 수원삼성과 함께 최다 우승 공동 1위에 올랐다.

포항은 지난 시즌 결승에서 전북을 꺾고 통산 5회 우승을 달성하며 전북, K리그2 수원삼성과 함께 최다 우승 공동 1위에 올랐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침길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대표 상징물(CI) 2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장수군

JANGSU COUNTY

<p>새 CI는 금강·섬진강에서 발원한 첫물, 청정 산악지역,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 생태관광, 산악레저, 생명산업의 '으뜸 장수'를 형상화했습니다.</p>	<div style="background-color: #2e8b57;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장수 그린</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장수 블루</div> <div style="background-color: #d62728; color: white; padding: 5px;">장수 레드</div>	<p>청정자연과 고원지역 의미</p> <p>금강과 섬진강의 상류수원 '물의 으뜸 고장' 의미</p> <p>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 의미</p>
----------------------------------------------------------------------------------------------	-----------------------------------------------------------------------------------------------------------------------------------------------------------------------------------------------------------------------------------------------------------------------------------------	------------------------------------------------------------------------------------